

“필자 발굴·소재 개발 양질의 불서 만들어야”

주제: **불서읽기 활성화
길은 없는가**

참석자:
윤창화(불교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이병두(칼럼니스트)
최승천(조계종 출판사 편집부장)
이규만(불교시대사 영업부장)
진행: 임연태 본지 편집부국장



윤창화 불교출판문화협회 부회장·민족사 사장



이병두 칼럼니스트



최승천 조계종 출판사 편집부장



이규만 불교시대사 영업부장

책 읽는 인구의 감소 추세가 가파르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 ‘책 속에 길이 있다’ 등의 독서권장 문구도 빛을 잃어 가고 있다.

영상매체와 인터넷, 휴대폰에 맞춰진 생활양식이 책 읽는 시간과 문화를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책이 양산된다 해도 읽는 사람이 없으면 헛수고에 불과하다.

반대로 책을 읽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책이 없으면 사회의 지식수준은 고갈될 수 없다. 좋은 책과 독자인구가 함께 늘어날 때 그 사회의 교양과 지식이 탄탄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분야에서 양질의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한 해 한편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열 사람 중 네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불서 전문 출판사들은 한 해 유통되는 불서가 최대 400만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한 해 동안 한편 이상의 불서를 읽는 불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 분야 전문가들도 한 해 동안 열 사람 중 네 사람 정도는 불서를 한 권도 읽지 않을 것이란데 의견을 함께 한다. 불서를 읽는다는 것. 그것은 책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는 의미도 있지만 불자로서의 교양을 쌓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신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불서 읽기 활성화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불교계 출판현장을 지키는 전문가들을 통해 불서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독서문화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불서읽기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정리·조동섭 기자, 사진·백재환 기자

임연태: 금년 현대불교는 ‘지금 읽는 불서 한 권, 성불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불서 읽기 지상 캠페인을 전개하려 합니다. 캠페인 지면에서는 ‘불서를 만드는 사람들’ 코너 등을 신설해 불서의 생산 현장을 소개하며 불교계 출판 시장의 하드웨어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사찰 도서관 운영 권장, 불서읽기 모임의 조직 및 성공사례 소개 등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군부대, 사찰 도서관 등에 불서 나누기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윤창화: 불서 읽기를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것은 불자 개인의 교양과 지식의 증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포교 혹은 불교계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계 여러 단체를 참여시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임연태: 우선 무엇을 불서(佛書)라 하면 좋겠는가? 그 정의를 먼저 짚어 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최승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전해주시나 간접적이지만 그 사상이 담긴 모든 종류의 서적을 불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전, 경전해설서, 학술서, 신행수기, 에세이, 문화유산 관련 서적 등을 포함해 넓은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윤창화: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정신과 불교의 이념을 담은 내용이라면 소설이나 시 등 문예물도 포함될 수 있고 전거나 각종 총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식의 출판물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가급적 넓은 범주에서 불서의 개념을 정립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병두: 영화의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화에서 부처님 이야기가 한마디 없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간접적으로 녹아있는) 여러 영화를 불교영화의 범주에 넣고자 합니다. 불서의 범위와 의미도

확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임연태: 하지만 지나치게 범위를 확장할 경우 자의적 해석에 따른 이견과 불서와 비불서의 모호한 경계에서 오히려 생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점에서 불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이규만: 서점에서 불서와 비불서를 나누는 기준은 출간한 출판사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출판사에서 발간된 서적이 스님이 썼더라도 불교서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임연태: 출판사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까요?

이규만: 물론 그렇습니다. 출판사의 영업력도 무관치는 않다고 봐야 합니다. 홍보와 마케팅 등이 일반 출판사에 비해 약한 불교전문 출판사들의 현실적 고충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병두: 불교서적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았더라도 실제 팔렸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익이면 좋은 불서가 불교전문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이 좋겠지요.

윤창화: 스님들이 대체적으로 불교출판사보다는 일반 출판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교출판사의 전반적인 능력이 메이저급 일반 출판사보다 못한 것도 자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승천: 예를 들어, 지광 스님의 <정진>이 능인선원 출판부에서 나왔다면 지금의 (베스트셀러) 결과가 나왔겠는가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랜덤하우스라는 거대한 출판사에서 냈기 때문에 일반인의 호응을 얻은 것입니다. 출판사가 갖는 제작의 전문성과 홍보력과 영업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병두: 불교계 출판사가 대체로 열악하다고 하지만, 조계종 출판사의 경우 일반 대형출판사의 역할

을 해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조계종 출판사를 비롯해 불교계 출판사들은 새로운 기획물 등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도 사실이 아닌지요?

최승천: 조계종 출판사는 종단이 운영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판번역의 기능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화: 스님들의 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 책은 불 필요 없고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책은 독약이다’라고 표현하는 풍토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승천: 그것은 선종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교입선(捨教入禪)’은 원래 교리를 바탕으로 선 공부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교를 무시하라는 것으로 잘못 인식돼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교양대학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양대학을 다니는 불자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불교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생겨 불서를 사보는 경우가 많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병두: 정확한 통계는 없을 것이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스님들의 경우 책 읽기를 권하는 분들이 전체인 1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읽으라고 권하는 분들 중 다수도 책 추천에 높은 안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러므로 불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포교원, 학자그룹, 출판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해 ‘불서추천 가이드 북’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윤창화: 그런 작업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틀림이 없습니다. 하려고 한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도 아닐 것입

니다. 개인의 수준에 맞춰 초·중·고급 등 등급별로 3-5권 정도씩만 추천해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규만: 많은 불자들은(특히 처음 입문한 경우) 불교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런 시기에 좋은 독서지도가 따라 주지 않으면 기록신앙으로 휩쓸리거나 ‘불교는 역시 어려워’하고 돌아서 버린다는 겁니다. 기록교의 경우 목사님들이 책을 들고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책 들고 법문하는 스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책 읽기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임연태: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고, 수행에도 철저한 스님들이 불자들에게 책읽기를 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서의 소비에 있어서 사찰에 관련된 서점과 일반서점 판매 비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규만: 물론 있습니다만, 그리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영일현장에서 볼 때는 5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두: 사찰에서는 법보시로 다량의 책을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판매인데 영일현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독자연구의 측면에서 통계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보시가 출판사를 어렵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불교서적은 절에 가면 공짜로 얻는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병두: 그리고 학자, 스님, 군법사, 종무원 등 불교계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불서를 돈 주고 사서 읽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들은 공짜로 받아보겠다는 생각이 팽배해있습니다. 이런 풍토에도 자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군부대 등에 책 보내기 운동을 하는 경우도 책에 대한 인식을 가볍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투투컴퓨터

www.twotwocom.co.kr

네이버에서 투투컴퓨터를 검색하세요! 사주대전, 금강장사,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

사찰신도관리 전문프로그램 금강장사

한눈에 보이는 신도관리! 철저한 사후관리!

속원관리/회원관리/영가관리/생일관리/명함관리/모뎀처리/일정관리/회계관리/신수보기/전체신도인쇄/자료정리와 백업기능... 투투컴퓨터의 금강장사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용 종합 역학 소프트웨어

사주대전은 무료 업그레이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사주대전의 모습을 투투컴퓨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리, 주역, 귀곡, 지미, 기문, 궁합, 성명, 택일, 당사주, 토정비결, 오운육기

홈페이지 제작

1. 제작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전문담당직원이 직접 방문 상담
2. 제작 후 지속적인 홈페이지 관리 컨설팅지원
3. 검색사이트 일반등록 무료대행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 (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류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원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